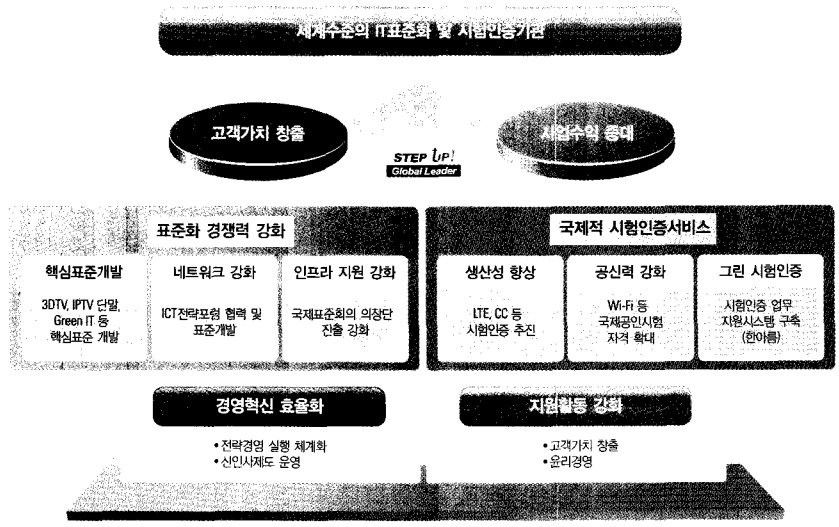
2010년도 TTA 사업추진계획

진병문 |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조인섭 | TTA 시험인증연구소 소장

TTA는 지난해 정보통신 국제표준화 리더로서 WiBro Evolution, LTE-Advanced, AT-DMB, 20핀 휴대폰 충전기 등 TTA 중점표준을 ITU에 제안했고, ITU 기후변화 영상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Green IT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네트워크 · 소프트웨어 · 디지털방송 · 이동통신 분야에서 2,200여 건의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시험 자동화 도구 개발 및 시험인증 업무지원시스템(한아름) 개발을 통해 시험고객의 편의성 및 업무효율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에게 현재의 위상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 역량이 높은 분야와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TTA는 정보통신 표준화가 국가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ICT융합 분야를 포함한 정보통신 표준화



[그림 1] 2010년 TTA 사업추진 전략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6대 전략을 강화하여 세계수준의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화 부문

표준화 부문에서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제표준 획득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확산을 위해서 'Global Standardization Leadership 확보' 라는 비전에 따라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IPTV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DCAS, SI, 미들웨어 표준과 신규성장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3DTV 등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효과가 큰 융·복합 분야를 포함하여 460건의 TTA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며, 특히 의료용 인체통신전송규격 등 핵심표준은 국제표준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전략맵' 을 Rolling Plan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산업체 및 TTA표준화위원회, IT국제표준화전문가, IT표준화전략포럼 등에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TTA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선진 표준화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 기반 및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4월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IT 표준화 회의(CJK IT Standards Meeting)의 경우, 지난 2002년 TTA가 제안하고 주도해 추진된 협의체로서 금번 10번째 회의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RFID, IPTV 분야의 국제 표준화 공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말 북경에서 개최되는 세계표준협력회의(GSC)에서는 세계 10대 표준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4G 이동통신, ICT와 환경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국내적으로는 세계 포럼·컨소시엄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국내 미러(Mirror) 포럼 역할을 수행할 40여 개의 시장 중심의 포럼을 선정·지원하여 국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2년간 태국·베트남에 대해 시행한 개도국 표준자문서비스를 다른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산업표준(KS)의 개발에도 중점을 두어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고급 표준화전문가 양성 및 지원을 위해 표준전문가의 4대 능력(IT R&D 지식, 표준화절차, 협상능력 및 어학적 요소)을 겸비할 수 있도록 심화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300여 명의 국제표준전문가 Pool을 지원하여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118명 진출 및 ITU 국가기고서 300여 건의 반영을 목표로 한국의 기술적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정된 표준이 표준화기구의 표준채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채택, 즉 상품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표준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전략과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표준컨설팅 서비스, 기술표준관련 교육, 용어표준화 및 표준정보의 보급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험인증 부문

시험인증연구소는 2001년 12월 설립 이후,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민간 시험인증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정보통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및 기술지원 추진을 통해 우수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과 국제 수준의 시험환경을 구축하여 국내업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TTA에서 국제공인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에는 〈표 1〉과 같이 그간 TTA가 구축해 온 블루투스, GSM/WCDMA, WiMAX, 패키지 SW 등 다양한 시험인프라를 근간으로 하여, Wi-Fi, 가상화 솔루션, Anti-DDoS, ATSC-M/H, LTE 등 정보통신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신규 시험인프라를 추가하여 총 88종에 대한 시험인프라 구축과 이의 운영을 통해 약 2,000여 건의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는 Wi-Fi Alliance, WiMedia Alliance, Display Port 등 무선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CTIA BT, BQTF 등 기존 블루투스 분야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블루투스 프로토콜 및 RF에 대한 시험환경 및 시험방안에 대한 지속적 개발과 이를 통한 블루투스 v2.1+EDR, v3.0+HS 및 Low Energy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시험서비스를 제공

〈표 1〉 TTA의 시험인프라 구축현황 및 계획

구분	기존 분야(83종)	2010 신규 분야 추가(5종)
네트워크 분야	블루투스, Server, LAN/MAN(Switch, Router), IPv6(라우터, 단말), VoIP(H.323, SIP, MGCP, MEGACO), xDSL, 광통신, 정보보호, ITS, 통신응용, 무선랜(IEEE 802.11a, 802.11b, 802.11e), WPAN(UWB, ZigBee), 홈네트워크(홈게이트웨이, 월패드, 정보가전), USN, MMoIP, 차세대 PC, USB, 블루투스 저전력 등 28종	Wi-Fi 1종
SW 분야	패키지, 모바일, 컴포넌트, GIS, e-Biz, Game, ERP, 리눅스 OS, SI, 웹 관리도구, S/W 개발도구, 유틸리티, 콘텐츠 개발용, 교육용, 보안용, 홈네트워크, 스토리지 관리, 디지털콘텐츠, 바이오매트릭스, e-Learning, 임베디드, 텔레매틱스, DRM, 정보보안, SMS 등 25종	가상화 솔루션, Anti-DDoS 등 2종
디지털방송 분야	오픈케이블(케이블방송), ATSC(지상파방송), 광송수신기(CCTV용), 위성방송수신기, 디지털AV인터페이스, 데이터방송 수신기(OCAP, ACAP), 미주향 셋톱박스 내장형 DTV, 유럽향 셋톱박스, DMB, 국내 및 미주 수출향 오픈케이블 셋톱, 지상파 데이터 방송용 애플리케이션, 케이블 데이터 방송용 애플리케이션, IPTV 미들웨어, DVB-H 등 16종	ATSC-M/H 1종
이동통신 분야	CDMA(IS95-A/B), CDMA 1x, 유럽 GSM, CDMA EVDO, 북미 GSM(EGPRS, 850MHz), WiMAX, WCDMA, HSDPA, HSUPA, 휴대전화 충전기, A-GPS, OTA, WiMAX(w2) 등 14종	LTE 1종

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네트워크장비 BMT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부처, 통신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광전송장비/스위치/라우터/보안장비 등에 대한 BMT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 밖에도 USB/WUSB 국제공인시험서비스, RF-DSRC L2/L7 표준을 기반으로 한 ITS 시험서비스, 차세대 MMoIP 장비 등 각종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SW 분야는 가상화 솔루션 SW, Anti-DDoS SW 등 신규 시험인프라 조기 구축과 패키지 SW, GIS SW, E-biz SW, Component SW, Game SW, 보안 SW 등 전 SW에 대한 품질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200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CC평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SW업체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진흥원과의 MoU 체결 확대 및 지역 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 SW 제품에 대한 수출지원을 위해 국제화(Globalization) 및 현지화(Localization) 시험도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방송 분야는 2012년 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에 대비한 DtoA 컨버터박스 시험인증환경 구축과 국내 및 미주 수출향 OpenCable 셋톱박스, 케이블카드, 케이블레디 DTV 등 시험인증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DMB 2.0, ATSC-M/H 등 모바일 TV방송 분야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지상파DMB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DMB 수신기, 개도국 T-DMB 지원장비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지식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DVB-H 현장시험환경을 확대구축함으로써 국내 DVB-H 수신기 제조업체의 해외수출제품 현장시험 지원과 DVB-H 시험규격 연구 및 DVB-T2 시험규격 선행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동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LTE(Long Term Evolution)에 대한 신규 시험인프라 구축과 기존의 GSM/WCDMA 휴대폰, Mobile WiMAX 제품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고 추진해 갈 예정이다. 특히 Mobile WiMAX 시험과 관련하여 국제 WiMAX Forum 국제공인시험소 시설 보완 구축(NCT upgrade, Operator IOT)과 WiMAX 시험을 위한 OTA, WiMAX Wave 2 분야 시험서비스 제공과 RPT 시설확장을 통한 OTA 시험환경 구축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2007년 말에 제정된 20핀 휴대폰 충전기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 사업자,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험인증연구소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통해 업체의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수준을 한 단계 up-grade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제품 경쟁력 제고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이 국내 정보통신 산업을 책임질 중견기업으로 육성되고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새로운 산업 및 시장개척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TTA